

# 큰빛은혜교회 가정에배지

2023. 11. 01. WED



##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다 같이**

- 1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 2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 3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 4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 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후렴**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

**요한복음 5장 2~14절**

**다 같이**

- 2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 3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  
직임을 기다리니
- 4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 5 거기 서른여덟 해 된 병자가 있더라

- 6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 7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 8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 9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 10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 11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 12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 13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 14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 말씀 나눔

##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 인도자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에서 예수님께서서는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후 다시 성전에서 치료받은 병자를 만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몰라서 안 될 귀중한 교훈 세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개인과 가정 가운데 큰 깨달음과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첫째, 인생의 비참한 질병은 죄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병을 가지고 산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38년간 병마에 시달리며 살아온 사람의 생애가 나옵니다. 누가 보아도 비참하고 측은하고 저주스러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 병자는 38년간 삶을 비관하며 많은 눈물과 한탄과 원망 속에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주님은 이 사람의 저주스러운 38년간의 생애를 그 자신의 죄에 돌리고 있습니다. 즉 죄의 결과로 이러한 불치의 질병이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율기에 나오는 율이나, 신약 성경에 나오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 된 사람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하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함부로 질병에 걸린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인생의 비참한 질병은 일반적으로 죄에서 기인한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따라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본문에서 배우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아프면 먼저 약을 찾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다운되고 심적으로 불안하면(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병원부터 갑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하면서 혹여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범죄 한 사실은 없는지 또는 아무도 없는 혼자만의 시간에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정과 개인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 둘째, 죄 용서는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죄에 대한 용서의 권한과 권세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죄 사함은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았던 베드로 역시 사도행전 4장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예수님 앞에 나아와 죄의 문제를 해결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죄의 문제를 나누고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십시오. 요한일서 1장 9~10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모든 죄를 주님 앞에서 모두 다 사함 받는 귀한 역사가 가정과 개인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 셋째, 용서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죄 사함을 받고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다시금 죄를 짓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니 이제 죄를 지은들 어떠냐? 우리의 구원의 취소되겠느냐?”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본문에서 분명히 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 온 여인에게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11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는 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으면 몸의 행실을 더욱 깨끗이 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는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시고 난 후 예수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죄는 매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로 올 때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총을 헛되이 받아서는 안된다는 교훈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 교훈들을 가슴에 새기고 삼시다. 죄짓는 것을 무서워하며, 죄지었을 때는 예수님께 항상 회개하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가정과 개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마무리 기도

## 다 같이

사랑의 하나님! 38년 된 병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나눔

## 다 같이

- 1 나를 힘들게 하는 육체적/정신적 질병이 있나요?
- 2 서로 회개할 것을 나누고 치유가 임하도록 중보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 중보 기도

### 지도자들을 위해

## 다 같이

- 1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과 힘과 해결책을 주시도록
- 2 각 자리에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히도록
- 3 하나님 앞에 진실로 겸손하게 서서 주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 4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 주기도문

##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